



신흥 아시아는 기후 변화와 핀테크의 부상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거시 건전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파리 - OECD 개발 센터는 오늘 발표한 *신흥 아시아의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핀테크 및 친환경 목표 적응* 보고서를 통해 신흥 아시아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저탄소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시 건전성 정책 (시스템 위험 감소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지역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서술합니다. 신흥 아시아의 정책 당국은 지난 수십 년 간 아시아에 영향을 미친 두 번의 주요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이러한 조치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는 바젤 III 은행 규제 개혁을 국가법으로 제정하고 거시 건전성 제도와 구성을 재정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신흥 아시아의 당국이 해당 정책의 효과적 시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도전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 사항에 대해 서술합니다: 1) 거시 건전성 정책 효과 평가 시에는 통화 정책과의 복잡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 것, 2) 은행 및 비은행 중개인 간의 상호 연결 증가에 대해 고려할 것, 3) 국경 간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것, 4)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거시 건전성 정책을 최선의 목표로 삼을 것, 5)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결과에 대해 고려할 것, 6) 국가의 거시 건전성에 대한 방향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신중하게 설계할 것

기후 변화 관련 위험은 신흥 아시아 국가 금융 시스템의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은행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책 입안자는 기후 변화와 관련한 체계적 위험 해결 및 저탄소 투자 지원을 위해 거시 건전성 정책 툴킷을 수정하거나 확대해야 합니다. 정책 대안에는 기후 관련 위험을 거시 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합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탄소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액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신용 흐름을 기후 친화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핀테크*라는 금융 기술의 부상은 행동의 위험성 증가, 한 부문에서의 변동성 증가, 금융 기관 이탈을 포함한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흥 아시아 국가는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하여 핀테크 기업들을 규제 경계 내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핀테크 활동의 국경 간 특성과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규제 융합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언론사 문의처: 텐수케 타나카 (Kensuke Tanaka), OECD 개발센터 아시아 데스크 담당자



(Kensuke.Tanaka@oecd.org, +33 6 27 19 05 19) 혹은 보크라 크리우트 (Bochra Kriout),
OECD 개발센터 언론 담당자 (Bochra.Kriout@oecd.org, +33 1 45 24 82 96)